

# 광주 1분기 전월세 거래 증가율 6대 광역시중 최저

전년비 6.49% 늘어…이사철 전세난 없어

3월 전셋값 상승폭도 전국 평균 밀돌아

광주지역의 올 1분기 전월세 거래량 증가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셋값 상승폭도 전국 평균을 밀돌았다. 매년 3월은 봄 이사철 수요가 집중돼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사철 전세난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25일 KB부동산 '알리지'(R-easy,

[www.kbreasy.com](http://www.kbreasy.com))와 부동산정보업체 [KB부동산씨브\(www.serve.co.kr\)](http://www.serve.co.kr)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올 1분기 전월세 거래량은 7133건으로 지난해 1분기 6698건과 비교해 6.49%(435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 1분기 전월세 거래량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인한 수요 증가로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0.84%가 증가했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등이 작용해 거래량 증가가 소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6대 광역시 중 울산은 올 1분기 전월세 거래량이 6118건으로 전년 대비 22.56%(1126건)이나 늘었고, 부산도 올 1분기 2만118건으로 전년 대비 16.99%(3358건)가 증가했다. 인천(12.54%), 대구(8.11%), 대전(6.75%)가 그 뒤를 이었다. 주택임대차보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기간인 2년을 감안해 지난 2011년 1분기 7000건과 비교해도 1.87%(133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광주지역의 지난달 전셋값 상승폭도 전달 대비 0.3%로, 대구(0.9%), 대전(0.8%), 인천(0.4%)에 이어 네 번째였다.

전국 평균인 0.4%보다 낮았다. 2년 전 전셋값 폭등으로 상승 여력이 감소한데다 이때 폭등한 전세 아파트가 올해 재계약 시점을 맞았지만 의외로 전세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 광주에선 남구(0.8%)와 서구(0.7%) 만 타 지역보다 상승폭이 눈에 띄었다.

반면 전남지역의 올 1분기 전월세 거래량은 5758건으로 전년 대비 30.24%(1337건) 늘어 제주(36.21%,

1501건)에 이어 전국 2위의 증가폭을 보였다. 남악 등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물량이 재계약 시점을 맞아 거래가 활발했던 것이 주된 이유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셋값 상승폭은 전달 대비 0.1%를 기록해 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다.

부동산씨브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정부의 4·1 대책에 따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4·1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전월세 시장이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동산담보대출 대상·한도 확대

감정평가액 100%까지

다음 달부터 동산담보대출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개선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군산 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취급액이 4437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추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은행권과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상자 범위,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별 대출한도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서 80~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업력 기준을 1년으로 낮추고 제조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농지도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5월 15일 이전에 새롭게 개편된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또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체권행사 유예기간에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쌍용건설 워크아웃과 STX 자율협약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 여성경제인협회 여성창업 경진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회장 조애옥)가 '2013년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여성인력의 사업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는 이번 대회는 예비 여성창업자와 창업 2년 미만의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조와 서비스, S/W, H/W개발, 콘텐츠, 멀티미디어, 디자인, 광고 및 생활아이템, 생명공학, 식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참가 가능하며 서류심사

와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에게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또 최우수상 2명(상금 각 500만원), 우수상 3명(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 3명(각 200만원 상금) 등 총 3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상자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우대와 신용보증서 발급 우대 및 여성기업멘토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자 신청접수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http://www.w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5월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062-527-1612).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건설업체 작년 순이익 전년비 반토막

### 매출은 24% 늘어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업체들의 순이익이 1년 전의 반토막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2년 종합건설사 1만132개사의 순이익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 3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참가자 신청접수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http://www.w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5월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062-527-1612).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졌다. 그러나 성장성과 안정성은 다소 개선됐다.

건설매출액은 7.0% 상승했다. 국내공사 매출액은 2.6% 증가한 데 그쳤지만 해외부문 매출이 전년 39조 9000억원에서 작년 49조5000억원으로 24.1% 늘어났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143.7%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개선됐다. 차입금의존도는 전년 22.0%에서 21.

9%로 떨어졌으며 유동비율은 140.

0%로 3.4%포인트 높아졌다. 신규 사업 축소, 차입금 상환, 부채감소 등 구조조정 성과로 건설사들의 안정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와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저가 공사 수주 확대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51.60(+16.29)

▼ 코스닥지수 559.40(-4.41)

▼ 금리(국고채 3년) 2.56%(-0.05)

▼ 원·달러 환율 1112.10원(-5.60)

**제39회 보성다향제**

# 녹차페스티벌

기간 2013. 5. 14.(화) ~ 5. 19.(일) / 6일간  
 장소 한국차소리문화공원, 차밭일원  
 행 행사내용 : 첫잎따기, 차만들기, 티월드챔피언십, 티아트페스티벌,  
 한·중·일 명차선정대회, 전국학생차예절경연대회  
 문의처 : 보성다향제녹차대축제주진회(061-853-0058)  
 보성군 문화관광과(061-850-5212)

차 만들기 체험장 운영

- 기간 : 2013. 5. ~ 10월말
- 장소 : 한국차박물관외 16개소
- 문의처 : 보성군 녹차산업과(061-850-5631)  
 전라남도관광협회(061-285-0832)

**보성군**



기아차 '착한 기부'  
기아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5일 기아차 하남지점에서 '착한 기부' 행사를 열고 500만 원의 기부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지난 2월 기아차가 판매한 차량 1대당 1천원을 적립해 마련했다. /기아자동차 제공

## 광주·전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90사

매출 34%, 고용 8.6% 늘어

광주·전남지역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업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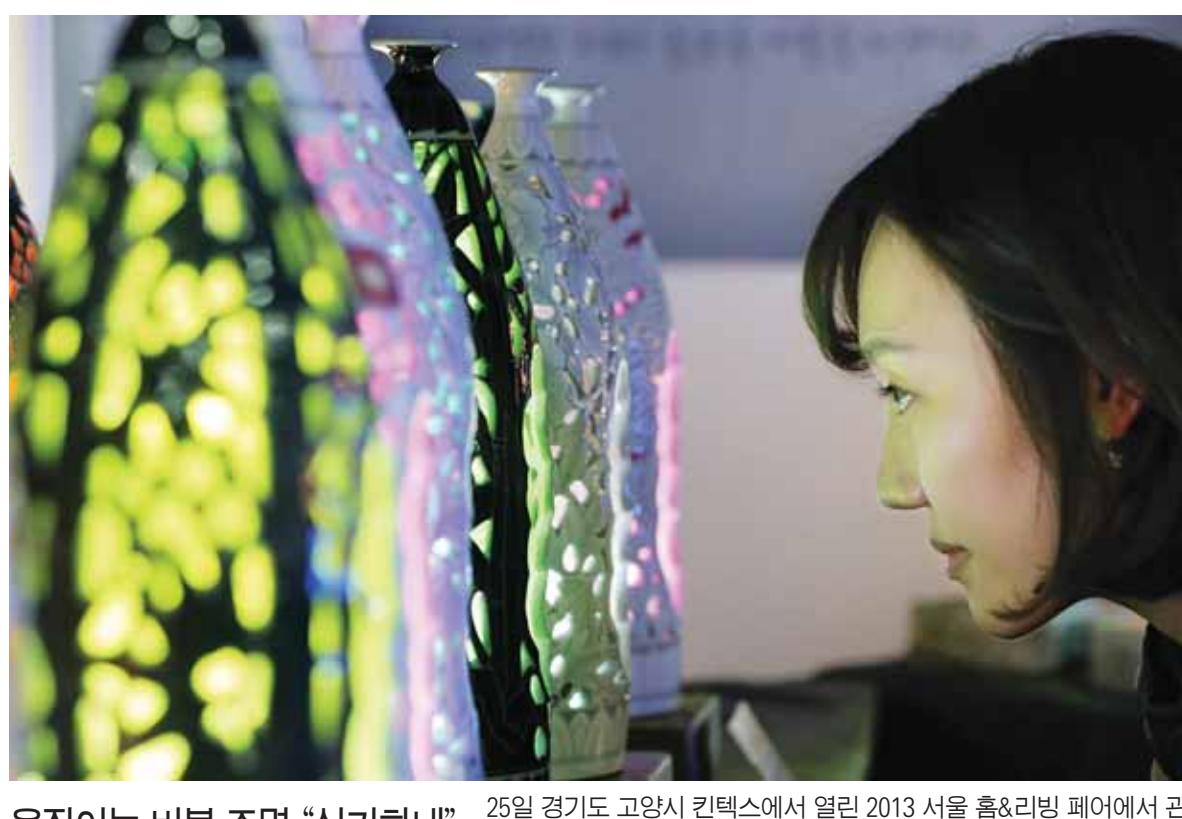
25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역 31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555개사 가운데 2011~12년 계속 입주기업 290개사의 2012년도 사업성과를 조사한 결과 총 매출액이 968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의 722억 9700만원보다 34.0% 증가했다.

이는 종기중앙회가 조사한 2010년도 중소제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7.13%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고용 부문에서도 2012년에 총 991명을 고용해 전년도의 912명보다 8.6% 증가해 통계청이 조사한 2012년 전체 고용증가율 1.4%를 크게 웃돈 수치다.

이의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 광주지방청이 22억원의 예산으로 설치 중인 '시제품 제작터'를 활용해 제품개발과 창업교육 등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방청은 이에 대해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기준 기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3 서울 홈&리빙 페어에서 관람객이 LED빛에 따라 움직이는 버블 조명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과목과 해외마케팅, CEO 특강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외국어에 약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강도 높은 비즈니스 영어 과정을 편성했다. 무역협회는 교육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이수 이후 지역 무역업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입교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ita.net](http://gj.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943-94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